

살모사

또 목에서 쇠에 소리가 난다. 무엇인가 나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전철을 타고 은주가 다니는 학교에 갈 것이다. 전화는 오전 나절에 왔다. 용역 책임자 서씨가 대신 받아 준 전화는 오늘 중으로 학교에 들려 달라는 용건이었다. 은주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게지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급한 대로 작업복만 갈아 입고 나오는 길에 나는 봉투를 해야하는 것인지를 놓고 잠깐 망설였다. 자식새끼 흠을 덮는데 그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은주가 일러 준 요령이었다. 2호선 전철 내에는 임신 시약 광고가 호젓하게 나붙어 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은주를 배고 있던 날들이 떠오른다. 남자는 미끈한 점액만 남긴 채 떠났고, 불행히도 그것은 웅골찬 숨이 되어 내 뱃속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것이 제법 사람 모양새를 하고 꿈틀댈 때, 머지않아 내 몸을 물어뜯는 충물(筮物)이 될 것을 직감했다. 엄습해 오는 이물감. 그때도 내 목에서는 쇠에 소리가 났다. 생명이 온전히 제 것으로 분리되는 동시에 나를 움아맬 것을 알리는 위험 신호.

아버지는 마천골에서 제법 이름난 땅꾼이었다. 안마당에는 사육상자가 침탑처럼 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독사, 살모사, 까치독사, 능구렁이같은 팻말을 걸어 두었다. 아버지가 비료 포대 가득 뱀을 잡아오면, 엄마는 상자에 물을 갈아주거나 몸을 휘감을 만한 가지를 넣어 주었다. 아버지는 값이 많이 나가는 흑사를 쉽게 잡을 만큼 재주가 좋았고, 집은 언제나 그것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대개는 뱀탕집 사람들이었지만, 용케도 알고 찾아오는 서울 사람들도 있었다.

아버지가 그 바닥에서 꽤나 유명세를 치른 것은 탁월한 재주도 있었겠지만 입담 탓이 컸다. 과하다 싶을 만큼 값을 높여 불렀다가 큰 선심이라도 쓰는 척 깎아주거나, 채집 무용담을 늘어놓는 식으로 객의 마음을 쥐고 흔들었다. 그 중에도 으뜸은 야한 농담들이었는데, 해박한 지식을 음담패설로 엮는 그것만큼은 아버지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 뱀이 와 정력에 좋은 지 아요? 숫뱀이 말ियो, 거시기가 두 개요. 이 놈 목기만 하모 밤이 마 내 세상인기라.

줄줄이 딸만 낳아서 아들 씨에 목말랐거나, 다 늙어 주글주글해진 뒤에도 정력만큼은 미련이 남아서 체면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들에게 줄줄이 장창 쏟아내는 아버지의 사설은 구원과도 같아서 으레 사육상자는 자전거에 실려 우리 집을 떠났다. 아버지가 호언장담하던 약효가 정말인지는 나는 잘 몰랐다. 그저 당신 또한 사시사철 뱀술을 달고 살았고, 뱀을 사 갔던 사람들이 항의해 온 적 없는 걸로 봐서 영 허풍은 아니라고 여겼다.

면 소재지에 있는 국민학교에 들면서 같은 반 아이들은 날더러 뱀집 가시나라고 불렀다. 산 밖으로 나오자 나는 더 이상 위대한 전사의 딸도 유창한 재담가의 딸도 아니었으며, 구린내나 풍기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다. 틈만 나면 남자애들이 혀를 날름거리며 젓가락으로 찢러대 온 몸은 점점이 피멍이 졌다. 내가 노려보기라도 하면 '그년, 뱀집 가시내 아니랴까봐' 며 금새 쥐어 박혔다. 나는 고독했다. 여덟 살이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깊고 긴 감정이어서 나는 껌질만 겨우 남은 박제동물처럼 교실에 걸려 있었다. 그 고요하고도 끔찍한 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돌아오면, 나는 언제나 사육상자를 열었다. 그럴 때마다 뱀은 지친 마음을 활아주고 고독을 감쇄시켜 주었으며, 분수처럼 뱀어내는 수다도 견뎌 주었다. 속을 훌훌 털어내고 나면 이내 흡족해져서 나는 종종 개구리 한 마리를 넣어 주곤 했다. 개구리는 팔딱거리며 잡히지 않으려 몸부림을 쳤고, 뱀은 노련한 자세로 앉아 적당한 때를 골랐다. 10분이고 20분이고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식욕에 눈멀어 다 잡은 놈을 놓치고 마는 여느 육식동물과는 달랐다. 그러다 재빠르게 단 한 번, 이빨을 몸통에 꼭 찢러 넣고 독을 흘려 넣는 것이다. 아주 능숙하고도 빈틈없는 솜씨였다. 내가 침을 꿀꺽 삼키고 숨도 안 쉰 채 상자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버지는 조용히 다가와 금방 뱀이 한 행동이 '스트라이크' 라고 알려주었다. 이내 개구리가 방향감각을 잃고 팔딱거리다 숨이 끊어지면 비로소 뱀은

아주 천천히 머리부터 집어 삼켰다. 나는 목을 타고 넘어가는 먹이의 행로를 보면서 제일 못살게 굴던 방앗간 집 형구를 생각했다. 당시 나는 아이들을 선동하던 형구를 살깊이 미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구리 다리가 입 속으로 빠져들면 나는 마치 형구에게 복수라도 한 것처럼 흥분해 종내는 침까지 흘렸던 것이다. 하지만 엄마에게 들키는 날은 말 못하는 미물이라고 못살게 굴면 벌받는다라는 야단과 함께 회초리가 날아왔다.

- 간 큰 년,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뱀상자 근처는 얼씬도 말했는데 말을 흘려?

- 걱정마, 죽이는 일은 없을 테니깐.

- 요것 말하는 것 좀 보소.

싸리문을 들어서다 상자 앞에서 막대를 들고 슯스뿔 뱀의 식욕을 돋구던 나를 발견하자마자 엄마는 광주리를 던져 놓고 손에 질 만한 것부터 찾았다. 그럴 때는 뒷마당으로 도망치는 것이 능사인데도 나는 지지 않고 대들었다. 매를 벌 것을 알면서도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처음 대막대기 세례를 받고 울다 지쳐 잠들었을 때 뒤편에서 들려오던 엄마의 녀두리는 이랬다. 오살할 년, 먹구리가 올때나 비싼 놈인디, 죽으면 어쩔 꼬나. 그때 나는 엄마가 사정없이 후려치는 작대기는 예민한 뱀이 행여 죽을까 하는 염려의 표현임을 알았다. 그때부터 제 배아파 낳은 자식보다 또 잡으면 될 뱀을 애지중지하는 엄마에게 경멸감이 일었다. 외로움을 달래려던 유희가 오기로 변한 것도 경멸감과 반항심이 맞물려 돌아간 탓이다. 그 후 엄마의 매질은 점점 길고 매서워져 때로는 심한 상처도 냈지만, 나는 그럴수록 '더 때려, 더 때려'하며 노려보았다.

- 저것이 뱀끼가 들었는 갑다.

- 그래봐야 다 니 욕하는 기다. 아가 지 어미 닭제 누구 닭겼노.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는 나를 보며 엄마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으면, 아버지는 곧잘 그녀를 타박했다. 군살이 박히고 보기 싫게 부러진 손톱은 흡사 나병환자의 그것같고, 축 늘어진 머리카락에 항상 붙어 있는 지푸라기들로 지저분한 엄마는 독기말고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고명딸보다 뱀을 귀히 여길 만큼 돈에 집착하는 모양새는 한없이 천박했다. 내가 그러니 아버지는 어떡했겠는가. 목자위가 늘어나고 무릎이 헤진 빨간색 내복바람으로 아홉시가 되기 무섭게 쓰러져 버리는 마누라에게 성욕을 느끼기란 만무했으리라. 넘쳐나는 살덩이에 아무리 비벼대도 말랑한 아랫도리는 딱딱해질 줄 몰랐을 것이다. 죽었던 아버지의 그것이 꿈틀댄 것은 그토록 몸을 내버려둔 엄마 탓이 컸다. 나는 토요일 오후에 들려오는 안방의 신음소리는 엄마의 것이 아니며, 한 달 전부터 아버지가 다른 여자의 속살 사이로 들락거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배를 맞대는 사람이 단골 거래를 하는 뱀탕집 여자라는 사실도 말이다. 나는 오전 수업을 파하고 돌아와 뱀들이 몸을 비비꼬는 것을 보면서 안방에서 벌어지는 교미를 상상했다. 수놈은 암놈의 등을 새끼 꼬듯 말며 올라갔다. 암놈이 배를 돌려 구멍을 내 주면 수놈은 숨겨 놓았던 생식기를 꺼내 밀어 넣었다. 그들의 방아놀이는 싱싱하고도 힘차서 둘이 뿜어대는 교성은 뒷마당 대나무 가지에 걸려 요동쳤다. 짹짹기가 끝나고 뱀들이 스르르 몸을 풀면 뒷마당으로 난 쪽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여자와 엄마가 교체할 시간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처럼 가냘프지만 민첩했다.

- 아지매 다녀갔다.

- 오늘이 오는 날이다.

- 와 요 상자들은 안 가지고 갔네. 그 여편네 정신머리하고는...

엄마는 뱀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악의 없는 흥을 봤다. 그들의 의례적인 대화를 들으며 나는 뒷돌 위에다 뺨이를 찼다. 중심에서 밖으로 돌아 나가는 힘들의 응집이 매섭다. 그 속도감에 엄마도, 아버지도, 나도 제자리에서 밀려난다. 뒷돌이 갈라진 틈에 걸린 뺨이는 위태로운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나는 그 순간 재빠르게 원을 그리는 뺨이 위에 실린 가족의 얼굴, 그 성긴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을 보았다.

엄마가 아버지의 불륜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나서다. 안방 걸레질을 할 때마다 엄마는 '이상타, 이상타' 혼잣말을 하며 나를 흘깃거렸다. 한웅큼씩 뭉쳐 나오는 긴 머리카락의 주인이 뱀술 파는 여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못하는 엄마가 미련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일러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말일에는 장이 쉰다는 것을 감박했던 엄마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엄마는 여전히 내가 주워온 가발로 인형놀이를 한 모양이라고 편히 생각했을 것이다. 아, 마치 한 편의 희극 같던 그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랫도리의 거뭇한 실타래를 손으로 모아 쥐던 여자와 절구를 어찌나 짱겼던지 별경계 달아 오른 방앗공이를 바지 속으로 넣던 아버지의 황망한 모습이란.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다. 현장을 잡았으니 '이 갈보년, 오늘 죽어 봐라' 며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마당에 힘껏 패대기를 치는 것이 수순인데도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 엄마는 사육 상자통 옆에 이고 있던 광주리를 내려놓고 조용히 걸어 나갔다. 엄마답지 않은 침착함이 낯설어 살진 뒷모습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한동안 나는 싸리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번뜩 떠오른 생각에 얼른 몸을 돌려 개구리 두 마리를 사육상자에 넣었다. 엄마는 오지 않을 것이고, 뱀이 두마리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볼 호기였던 것이다.

- 한목에 넘 많이 주모 토해내고 죽는다카이.

안방문에 기대고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버지의 음성에 노기는 없었다. 대신 나에게 막걸리를 받아오라며 삼백원을 건넸다. 아랫동네에 있는 양천네 가게까지 뛰면서 문득 엄마가 외가에 갔는지 궁금해졌다. 시집오고 한 번도 왕래가 없던 친정에 가기에 민망한 사유가 아니겠는가. 외가가 아니라면 딱히 갈 곳도 없는 엄마는 어디쯤에서 부유하고 있을까. 산을 벗어나는 순간 엄마를 덮칠 낭패감을 가늠하며 나는 좀 체면이 안 서는 일이긴 하지만 엄마가 외가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까지 훑은 걸 보면 내가 아주 엄마를 미워하기만 한 것은 아닌 모양이다. 양천네가 양껏 퍼 준 술주전자를 안방에 넣어주고 상자를 열었을 때 뱀은 개구리를 토해낸 채 죽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상자에서 썩어 가는 뱀의 창자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것 같고 전래동화처럼 그것이 밤새 내 목을 감고 위협할 것 같았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가끔 그 밤에 깊이 잠들었다더라면 내 인생이 참 많이 달랐을 거란 생각을 한다. 그랬더라면 사육상자 문을 열고 뱀들을 꺼내 안방에 풀어놓았던 사람과 어둠 속에서 쇠애 쇠애 선명하게 감지되는 소리와 아버지 모세혈관이 녹아버린 시각도 몰랐을 것이다. 잠깐의 정적과 플래시가 스친 다음 상자의 이음새가 부딪히는 쇠소리와 잣아드는 발자국 소리도 듣지 못했을 테다. 밤바람에 대나무들이 몸통을 비벼대며 장송곡을 올리자 나는 혼자라는 생각과 함께 홀연 겁이 물려왔다. 스르륵 배로 몸을 미는 뱀들의 소소한 움직임에 놀라고, 바람을 못 이기고 흔들리는 싸리문의 빼격대는 소리가 무서웠다. 아침이 되고 일요일마다 올라오는 상인 몇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까지 나는 땀이 흥건히 뺨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었다. 그대로 오금이 굳어 버린 듯 했다.

- 너저 아버지 죽었는 갑다.

내 방문을 거칠게 열고 양보 아저씨는 낭패감이 섞인 얼굴로 말했다. 잊고 싶어서 자꾸자꾸 바라면 정말 그렇게 될 때가 있다. 오전 나절 순경이 아버지의 시신을 들어낸 후 나를 지서로 데려간 것과, 그 때 순경아저씨 물음에 대답하던 기억은 가뭇하다. 아버지를 돌돌 말았던 가마니 위로 들러붙던 파리떼와 뇌에 촛촛히 들어와 박히던 죽음의 냄새, 심장의 힘에 밀려 뿔어대던 두려움을 고스란히 언어로 되살려야 했던 시간을 줄곧 도려내고 싶었다. 그런 탓인지는 몰라도 언젠가부터 조금씩 잊혀지더니 그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을만큼 흐릿해져 버렸다. 다만 밤에 다녀간 사람에 대해서는 끝끝내 말하지 않았다는 기억은 여전히 있다. 내 유일한 거짓말이기도 했고, 지금까지 그 비밀이 유예되고 있는 탓이기도 했다. 저녁무렵에야 엄마는 지서에 도착했다. 현관을 채 못 지나서 주저앉더니 '뭉쓸 사람, 이리 가면 우짜노' 하며 통곡했다. 능숙하고도 빈틈없는 숨씨였다. 엄마의 울음이 세상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자신에 대한 연민임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엄마의 부르튼 입술을 벗겨내면

촉촉한 비늘과 탄력있는 긴 혀가 만져질 것 같았다. 지서 쪽에서는 타살로 심증을 굳히면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엄마는 외가에 갔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덟 살짜리 여자애가 사육상자에서 뱀을 꺼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이튿날 지서에 온 사람은 아버지 바지에 묻은 체액의 소유자였다. 땅꾼 집을 전전하는 여자의 지난 밤 행방은 묘연했고, 순경은 그녀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돌아온 집은 적막했다. 부재의 감도가 심화될수록 죄의식이 목을 짓눌렀다. 나는 들어오는 걸음으로 뒷마당에 세워둔 지게에서 농약을 꺼내왔다. 엄마는 뒷마루에 걸터앉아 몸을 떨고 있었다.

- 엄마가 왔던 걸 알아.

상기된 엄마의 얼굴은 내가 병을 입으로 가져가자 일그러졌다. 금새 내 목에서 하얀 거품이 일었다.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을 수반하는지 몰랐다. 절반은 객기였고, 절반은 분노였으리라. 엄마의 스트라이크가 가당치 않은 월권행위임을 비난하고 싶었고, 그럴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말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도가 오그라드는 고통은 죽음에 가까웠지만 다행히도 목만 놓치고 숨은 붙들었다. 그 때부터 내 목에서는 쇠애 소리가 났다.

5 교시가 시작됐는지 학교는 한산했다. 운동장 한 쪽에서 준비 체조를 하는 아이들이 까르르했다. 나는 가장자리에 애써 마련해 둔 시멘트 길을 두고 총총히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무실로 향했다. 은주네 담임은 교무실 출입문을 등지고 앉아 있다. 그녀는 서른을 훌쩍 넘긴 목덜미와 작고 깡마른 몸매 때문에 깐깐함이 풍겨났다. 국화꽃무늬가 크게 들어간 블라우스 위에 남색 조끼를 받쳐입은 모양이 촌스러웠다. 유행도 멋도 아닌 어중간한 차림새였다. 무언가 분주히 적고 있는 뒷모습이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학급경영록이라는 굵은 고딕체 글씨가 눈에 띄었다. 반아이들의 가정상태와 성적, 나름의 감상기가 뺨뺨하게 적힌 페이지는 그녀의 꼼꼼한 성격을 드러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 번 두드렸다.

- 오셨군요.

두꺼운 무테 안경을 벗으며 그녀는 사무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장소가 마뜩찮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녀를 따라간 학교 건물 뒤쪽에는 꽤 정성 들여 관리한 듯 보이는 등나무 벤치가 있었다. 은주가 곧잘 들먹이던 그곳이다.

- 은주가 담당하는 구역이에요. 교내봉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곳을 자원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썩기가 징그럽다고 싫어하는데...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은주가 썩기나 송충이 같은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할 나이가 돼서 집으로 데려왔을 때 은주는 다른 아이들과 많은 것이 달랐다. 바퀴벌레를 손으로 째 눌러 '엄마, 이거'라며 코 앞에 들이밀고 히죽거렸다. 나는 그럴 때마다 엄마에게 은주를 보내는 게 아니었다는 후회를 했다. 출산 소식을 듣고 찾아온 엄마는 내가 키웠다간 병어리 만들기 십상이라며 은주를 마천골로 데려갔다. 아이를 감당할 만한 능력도 애정도 없던 나는 엄마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지리산에 안기면 지독한 고립이 몸에 들러붙는다는 사실은 은주가 돌아온 후에야 기억났다. 또래 아이들과 달리 뱀상자만 보고 자랐을 은주의 지난날들에 마음이 아렸고, 그때야 비로소 엄마의 천박한 언행이 그녀의 몸에 배어날까 두려웠다.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그런 대로 도시 생활에 적응하던 은주가 불길한 예감에 가까워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서너달 전, 그녀는 청계천에서 콘스네이크 한 마리를 사왔다. 빨강과 노랑, 흰색이 차례로 줄무늬를 이룬 새끼뱀이었다. 제 단도리할 만큼 넉넉히 쥐어준 적 없는 나는 수십 만 원 하는 사육뱀을 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캐물었지만, 그녀는 눈만 흘겼다.

- 알면 줄 테야? 신경 꺼.

은주는 자랄수록 저에게 관심 갖는 것에 진저리를 쳤다. 그녀가 어긋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어찌면

천성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뱀은 안 된다고 경고하다 종내는 손찌검도 했지만 허사였다. 씹씹거리던 은주는 오른뺨을 내밀곤 노려보았으니까. 나는 그쯤에서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나오는 아이에겐 아무리 물리적 힘을 가해도 소용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던가. 그 후 며칠 아이는 제 방에서 꼼짝도 않더니, 전기방석과 할로겐 램프를 넣은 유리상자를 제 침대 옆 간이 수납장 위에 놓아두었다.

- 콘스네이크는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마.

학교에 가려던 은주는 종종 내 방문을 열고 소리쳤다. 뱀상자 근처에는 얼씬도 말라던 엄마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덧입혀졌다. 남들처럼 과외다 학원이다 보낼 처지가 못되니 꼴찌를 도맡아 하는 은주에게 속상할 권리도 없었지만, 콘스네이크를 키운 후로 뱀 사육책만 죽자고 들이 파는 눈치여서 나는 몸이 달았다. 곧, 집은 콘스네이크에게 먹일 사료 따위로 엉망이 됐다. 청계 7가 조류공판장에서 얻어 온 닭 찌꺼기들을 배란다에 내 놓았더니 햇살을 먹고 쌀벌레떼들이 기어 나왔다. 그것들은 하나 둘 나방으로 변하더니 틈새를 통해 마루며 욕실이며 스텔스멀 기어다녔다. 충충한 냄새가 장판이나 벽지에 배어들어 현관문을 타고 들어서면 현기증이 일었다. 그만 갖다 버리라고 재촉도 하고 하소연도 했지만 은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 달쯤 지나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오른 콘스네이크는 제 주인을 알아볼 만큼 익숙해졌는지 은주가 며칠 집을 비워 내가 대신 먹이를 넣어 주자 금새 토하고 누워서 꼼짝을 안했다.

- 이거 봐. 얼룩이는 나 없음 안 된단 말야.

가기 싫다고 버티는 것을 으르고 달래 보낸 수학여행을 이틀도 못 넘기고 돌아온 은주는 뱀을 손목에 감아쥐며 말했다. 고등학교 때 엮은 우정이 평생을 간다기에 비용이 만만찮아도 단체활동은 빠지지 못하게 했건만 은주는 내맘같이 따라주질 않았다.

- 안 그러면서 친한 척 구는 거, 저능아 같애.

얼룩이가 보고싶어 캠프파이이며, 장기자랑이며 지루하기만 했다고 등비늘에 얼굴을 비벼대는 아이가 내 딸 같지 않아 나는 서운했다. 저 없는 동안 혼자 쌀벌레 뒷갈망에 흥역을 치렀을 걱정은 안 하고 토하는데 그냥 두면 어찌냐고 오히려 대드는 꼴을 보고 있자니 내가 한낱 뱀보다 못한가 싶었다. 은주의 얼룩이에 대한 마음씀씀이는 정도가 심해지더니 나 몰래 가방에 숨겨 학교에 데려가곤 했다. 그러다 몇 번이고 학생주임에게 발각되어 교내봉사를 했다는 뒷말을 전해 들었다.

- 오늘 학주한테 걸려서 교내봉사 했어. 뒷마당에 등나무 벤치... 다른 애들이 징그럽다고 치를 떨길래 내가 한땀지. 계집애들 내숭은...

몇 번 그런 일들로 수업대신 청소만 실컷 했다는 푸념을 들었던 기억에 나는 또 담임 선생의 호출이 은주가 얼룩이를 교탁 위에 올려놓은 정도의 용건인가 여겼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혼구녕을 내짚노라고 약조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면 해결될 일인 줄 알았던 것이다.

- 어머니, 은주 요즘 달라진 거 못 느끼셨어요?

한동안 난처해하던 담임 선생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말을 건네자 나는 말뚱한 눈을 하고 그녀의 입을 바라보았다. 은주에게 달라진 것이란 무엇일까. 얼룩이가 커서 쌀벌레로는 부족하다며 골든 햄스터를 들인 것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 체육시간에 허들을 넘다가 은주가 쓰러졌어요.

- ...

- 요즘 애들 뭐 학교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게 많죠. 사실 은주가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 건 제 책임도 크지요. 학원이나 과외도 반 아이들끼리 그룹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은주가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됐나봐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는데 수행평가에 은주랑 같은 조가 된 아이들이 몰려와서 바꿔 달라떼를 쓰더라구요. 점심도 혼자 먹는 게 싫어서 굶는 눈치였고.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는지 애들 사이에 골이 심하게 났나봐요. 몇 번 뱀을 가져와서 저랑 사이가 나쁜 아이들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를 치렀고요. 그거 모르셨어요?

- 은주가요? 몰랐어요, 몰랐어. 얼룩이 사울 때 난 그저 옛날 할머니 댁에서 기르던 뱀들 그리웠나 싶었지.

나는 담임 선생이 필시 못 알아들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재빠르게 수화를 했다. 목에서 공하고 뒤틀린 소리가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 반에서 아이들과 있는 사소한 트러블이야 그럭저럭 교내봉사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번 건 좀 달라요. 2 교시 체육수업에 굳이 안 나가겠다고 떼쓰는 걸 수행평가라서 빠지면 안 된다고 체육선생이 화를 냈나봐요. 마지못해 뛰다가 뒹굴었는데 체육복 바지 밑으로 피가 비쳤다는군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더니 임신 3개월인데 무리한 운동을 하는 바람에 자연유산이 되었노라고 의사가 말하더라. 나는 심장이 벌렁거려서 손 마디마디까지 흔들렸다. 때마침 무릎 위로 떨어진 썩기의 움푹거림이 자궁 속을 휘젓던 정자처럼 불길해 나는 손가락으로 확확 쳐냈다. 은주의 몸을 단단히 지켜내던 투명판을 뚫고 지나간 자리는 대나무 소리가 울리고 있을까. 금역을 통과한 바람이 썩어서 몸 구석구석에 패혈증을 옮겨놓는다는 것을, 그러다 종내는 뼈며 살이며 물어뜯고 발라먹는다는 것을 알기는 했을까. 순간 은주를 내게 뿌린 남자의 비릿한 기억이, 잊었다던 날들이 예고도 없이 목덜미를 감아왔다. 예상보다 짙은 어둠이 산을 타던 밤이었다. 평소처럼 나는 장애 들리 사료와 살충제를 가득 이고 짧은 시야를 걱정하며 바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조금만 방심해도 쏟아질 듯한 광주리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목이 뻗뻗해져 왔고 짜한 통증에 온 신경이 사로잡혀 산 어귀부터 누군가 나를 뒤따랐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다. 큰손이 덮친 것은 집에 거의 다 와서였다. 대나무 숲 사이로 난 길만 지나면 대문에 내 건 백열등이 보일 거리였다. 내 자그마한 얼굴을 한 손으로도 반쯤 가려버린 남자는 대나무 숲 사이로 나를 내동댕이쳤다. 그는 바지를 내린 채 '뱀집 가시네, 어디 소리 한 번 질러보거라. 너 어무이 나오나 보게' 하며 킬킬거렸다. 내 목에서는 쇠에 쇠에 소리만 났다. 타버린 성대가 터져라 소리라도 질러봤더라면 하고 그 뒤로도 두고두고 한이 됐다. 풀숲에 손바닥이 채이고 흙투성이가 됐지만 굶은 어깨로 누르는 그를 벗어날 수 없었다. 나를 감싸던 비늘이 마찰도 없이 미끈하게 벗겨져 나갔다. 이렇게 영겁의 허물을 벗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인자 다 큰 기다. 해마다 거둬 비늘을 갈던 뱀들을 내가 '징그러워'하고 말하면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그렇게 어른 뱀이 되는 거랬지. 그가 딱딱하고 둔탁한 물건을 내 몸에 한껏 신자 내 안의 여자가 찢어졌고, 동시에 대나무 잎들이 피워내는 바람이 밀고 들어왔다. 어른이 되는 거란다. 어른이 되는 거란다. 그가 흔들어대는 대로 몸을 부르르 떨면서 자꾸 주문을 외었다.

그 날 이후로 나는 좀 많이 아팠다. 말만한 계집이 못된 것만 제 아버 쪽 뺏노라고 쌍욕을 해대며 대나무 산길까지 나왔던 엄마는 젖은 잎들 위로 널브러져 있는 나를 업고 돌아왔다. 그렇게 하루를 꼬박 잠만 자더라. 엄마가 산 타는 일도 관두고 돌봤지만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말없이 깨죽만 넘죽넘죽 받아먹는 나를 측은히 바라보다 엄마는 '그래도 살아야재 우짜것노' 했다. 불행은 겹으로 온다고 검질긴 정자는 몸 속에서 파리를 틀었다. 깨죽을 토해 놓으며 나도 엄마에게 옮았는지 '그래도 살아야지 우짜것노' 했다. 대나무 밭에 죽순이 나고 장애 내다 팔 만큼 날이 풀리자, 나는 산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입술을 깨물며 저주했다. 은주가 발길질하는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서울로 왔다.

- 양호실에 가 보시겠어요?

넋이 나간 채 미동도 않는 나를 보며 담임 선생은 나긋하게 말했다. 저도 많이 당황한 눈치니 너무 역정내지 말라는, 좀 과한 훈수까지 두었다. 양호실은 2층 복도 끝에 있었다. 고즈넉한 복도에는 백묵이 칠판에 으개지는 소리와 책 읽는 아이의 포랑포랑한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슬리퍼에서 나는 방정맞은 소리가 끼여들어 불협화음을 낼까 싶어 발가락을 세워 걸었다. 양호실 옆에는 학생부 간판이 뼈뚫하게 걸려 있다. 수업을 빠지려고 피병을 부리는 아이들이 양호실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할 관문처럼 절묘한 배치였다. 드르륵. 베니어판 문을 밀자 창가 쪽에 누워 있는 은주가 한 눈에 들어왔다. 아이는 양지바른 곳에서 포도당수용액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다. 창너머로는 박스 안에서 공을 피하느라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보였다.

- 왜 왔어.

은주는 언제나처럼 불편함을 드러냈다. 내 목에서 나는 쇠소리를 아이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병어리 딸내미라고 빈정대는 소리가 싫어서 흔한 운동회도 소풍도 기어코 못 오게 하던 그녀였다. 평소 같으면 버럭 소리를 질렀을 아이의 음성이 유달리 쓸쓸해서 나는 왈각 눈물이 솟았다. 말을 할 수 있다면, 내 목이 조금이라도 허락한다면, '그래도 살아야재 우짜것노' 라고 말하고 싶다. 아이의 입술은 창백했고, 오전 나절에 휘몰아친 몹쓸 시간의 흔적이 걸려 있다. 내 목구멍에서 들끓는 침과 혀로 그것에 윤기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담임이 뭐래?

- ...

- 거지같애. 자퇴서 쓰면 될 거 아냐.

- ...

- 재수 없어. 나만 그러나 뭐. 솔직히 콩까는 기집애들 우리 반만 열두 넘는걸.

은주의 눈에는 적대감이 통겨 나왔다. 나는 침대시트를 지그시 내리누르다 말고 심상히 물었다.

- 누구였니

- ...

- 누구였니...

- 얼룩이 팔던 아저씨. 청계천 갔을 때, 첫눈에 반했어. 엄마도 알잖아. 얼룩이 무늬 얼마나 예쁜지... 사고 싶어서 얼마나고 물었더니 이십만원이라대. 내가 그런 큰돈이 어딴어. 내가 눈을 못 떴고 아유 어째, 아유 어째 그랬더니 아저씨가 농담처럼 묻더라. "애야, 너 나랑 한 번 하면 요놈 줄게" 좀 망설였어. 내가 몸을 막 굴리긴 했어도 '원조는 안 한다' 뭐, 그런 원칙은 있었거든. 얼룩이 유심히 한 번 더 보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좋아요" 그랬어. 사실 뭐, 원조 뛰는 애들 한 번에 십만 원 받으면 많은 거거든. 그에 대면 나 횡재한 거잖아.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재수가 없었어. 재수가 없었다구.

또르르 굴러서 쏟아지는 모래알처럼 은주는 주저리 쏟아냈다. 맘에 든 물건 하나 사려고 쉽게 허물을 벗는 아이에게 퇴학은, 피차 피곤할 일을 더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얼룩이를 사 왔을 때처럼 어처구니없어 하거나 기막혀 하지 않았다. 아이를 점령해버린 불감증은 온전히 제 탓만도 아니었으며, 머지않아 내가 깨죽을 토해내며 절망했던 순간이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전이될 것이란 예감이 왔다. 그러므로 괜히 어설픈 잣대로 두고두고 박힐 매질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나 집에 갈래.

은주는 주사바늘이 꽃힌 오른손을 내쪽으로 내밀었다. 그저 말을 하고 싶었던 듯이 숨도 쉬지 않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던 아이의 기세는 그새 한풀 꺾였다. 나는 양호선생이 바늘을 뽑기를 기다렸다가 서랍에 넣어 있던 솜으로 새어나오는 피를 진득이 눌러주었다. 업혀. 나는 등을 돌리고 아이를 기다렸다. 은주는 별 대꾸 없이 매달려 왔다. 무슨 심산지 평소처럼 까탈을 부리지 않았다. 몸은 작고 깡말라서 다리뼈가 쉽게 만져졌다. 은주의 몸은 참 많이 야위었다. 교실 뒤켠에서 다른 아이들이 만드는 온갖 기쁨, 슬픔을 가만히 지켜보는 그 깊고 긴 감정에 깎이고 스러졌을 것이라 생각하니 견디기 힘들었다. 계단에서 주춤하는 동안 은주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등에다 배를 찰싹 갖다댔다. 텅 비어버린 그녀의 몸에서 슬픈 피리소리가 새어 나왔다. 나는 터져나오려는 쇠 목소리를 막으려고 입술을 짹 물었다.

은주를 제 침대에 눕히고 나는 밤새 뒤척였다. 불행은 산을 떠나면 내게 해당 없으리라 강단지게 작심했건만,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생인가 했다. 하기사 새끼를 험한 바닥으로 내몰았으니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것이 언감생심이지 싶었다. 행불행이 온전히 내 영역에서 해결될 것이 아님을 모르는 바도 아니면서 참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가. 변변치 않은 직장이긴 했지만 두 식구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주공아파트건 해도 돌아올 집이 있으니 땀 한 톨 없이 상경한 것 치곤 나름의 성공이라 자찬하지 않았던가. 은주에게 인색하게 굴면서까지 절박하게 부었던 적금으로 작은 분식가게 낼 욕심만 무장무장 키웠던 나는 아이의 슬픈 몸 앞에서 철저히 능욕당하고 상처입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후회가 끝도 없이 올라왔다. 그것이 산과 엄마에게로 간다. 피를 토하고 살지지는 냄새가 피어날 때 나를 껴안고 '미안태이, 미안태이' 말을 못 잇던 기억쯤에서 나는 움짱달짝 할 수 없었다. 감정의 용기 앞에서 이성이란 얼마나 미력한가. 피붙이 몸 앞에서만은 상처받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것이 어미의 속성이라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런 통찰력과 이성을 붙들었더라면, 나는 결코 목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오래된 일이고, 그때 나는 너무 어렸다.

은주가 깨어나면 쉿켜 먹도록 깨죽을 한술 해 놓고 나는 일곱 시쯤 집을 나왔다. 고속터미널은 역한 냄새와 뿡뿡 노래가 뒹굴었다. 함양행 직행 버스를 타고 일찌감치 눈을 감았다. 도착하려면 만나절은 넉넉히 잡아야 하는 거리다. 출발할 때 즉석우동 한 그릇을 사 먹었는데 도착하니 점심때가 한참 지나 있었다. 다시 시간버스를 갈아타고 마천골까지 들어갔다. 비가 왔는지 고갯마루는 젖어 있었다. 꼭 십칠팔 년만인데도, 별반 변한 것을 몰랐다.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양천네 가게는 온데간데없고, 기념품 가게와 토종닭 전문 음식점이 들어선 것 정도였다. 그것도 퇴락한 기색이 완연했다. 지붕에 가득 앉은 먼지와 상호가 떨어져 나간 자국이 주인의 시름을 대변하고 있었다. 집 앞 대나무 숲까지 오르자 숨이 가빠왔다. 예전에는 한달음에 왔던 거리였는데 나이는 몸이 먼저 안다고 중간에 몇 번을 쉬었는데도 폐가 감당하지 못한 숨들이 목까지 차 올랐다. 싸리문에 걸려 있는 백열등은 대낮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다. 일없이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 같아 심장을 불구덩이에 들인 것처럼 화닥거렸다. 집은 비어 있었다. 처마에 가지런히 걸린 옥수수들이 엄마의 버리지 못하는 부지런함처럼 달려 있다. 나는 뒷마루에 걸터앉았다. 약병을 들고 눈에 핏대를 세우던 환영이 아직도 마당 어딘가에 박혀 있는 것 같아 눈을 금새 판 데로 거두었다. 단속이 심한 탓인지, 엄마의 기력이 쇠한 탓인지 마당을 점령했던 사육상자들의 개수는 그새 많이 줄었다. 그쪽으로 다가가 검은 천을 드리운 상자 하나를 열어 보았다. 살모사 한 마리가 새끼를 쳤는지 축 늘어져 있었고, 이제 막 어미의 항문을 뚫고 나온 새끼 살모사 몇 마리가 모여 있었다.

- 살모사는 와 이름이 살모사고?

상자 앞에 쪼르르 달려가 푹말에 적힌 글들을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그때 망태기를 개기던 아버지는 돌아보며 웃었다.

- 우리 단실이 이제 글자도 읽을 줄 아는 거 보이게네 다 컸대이. 엄마가 단실이 낳을 때 고생을 억수로 한 거 맨치로 뱀도 새끼를 낳으모 힘이 들거던.

- 그래서?

- 그래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 있는다 아이가. 그라모 옆으로 새끼들이 모여든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어미를 물어 죽이는 갑다 싶어서 살모사라 안 불렀나. 그것도 다 근거 없는 옛말이재. 모르긴 몰라도 어미가 지를 낳고 아픈게 걱정되서 안 그라졌나.

새끼 살모사들이 꿈틀거리며 어미 곁으로 움직이자 나는 괜히 가슴이 뭉클했다. 다리가 저려왔다. 산에는 일찍 어둠이 내려앉았고 밤바람이 속살에 비비적땃지만 꽤넌치 않았다. 나는 꿈쩍도 않고 앉아서 어서 어미 살모사가 기운을 차리기를, 엄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2001. 3 월 <현대문학>